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해졌습니다

- | | |
|--|---|
| <p>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p>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 <p>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p>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 | | |
|---|--|--|
| <p>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식품 제조·판매 - 무면허 의료행위 | <p>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시공 - 소방시설 미설치 | <p>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 매립 |
| <p>소비자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허위·과장광고 | <p>공정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담합 - 불법 하도급 | <p>기타 공공의 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채용광고 -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

시설과 사람들 2018 vol.79



CONTENTS

04 INTRO
부산시설공단 24시

SPECIAL

- 06 新경영
신임 이사장 인터뷰
- 09 NEW 부산시설공단 비전체계도
- 10 경영혁신토론회, 그 열기의 현장
- 14 알쓸시잡.
VR(가상체험 : Virtual Reality)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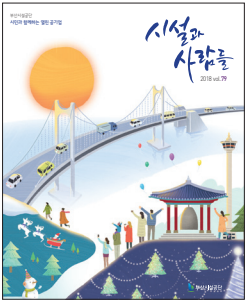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16 With You
시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스케치

- 18 포토에세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 20 인포그래픽
용두산공원



2018. vol.79
발행인 추연길 이사장
발행처 부산시설공단 051.860.7922
홈페이지 www.bisco.or.kr
디자인·인쇄 효민디앤피 051.807.5100

LIFE

- 22 행복더하기
부산시설공단 일자리대상 수상
- 26 추억나누기
제주도 산업시찰 후기
- 28 추억곱하기
응답하라, 1992! 공단 역사의 산 증인
- 30 사랑나누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현장
- 32 건강더하기
부산시설공단 종합검진 협약병원 전문가 함께하는 건강칼럼

행사소개

34 그곳에 가면
반짝반짝, 부산시설공단 겨울축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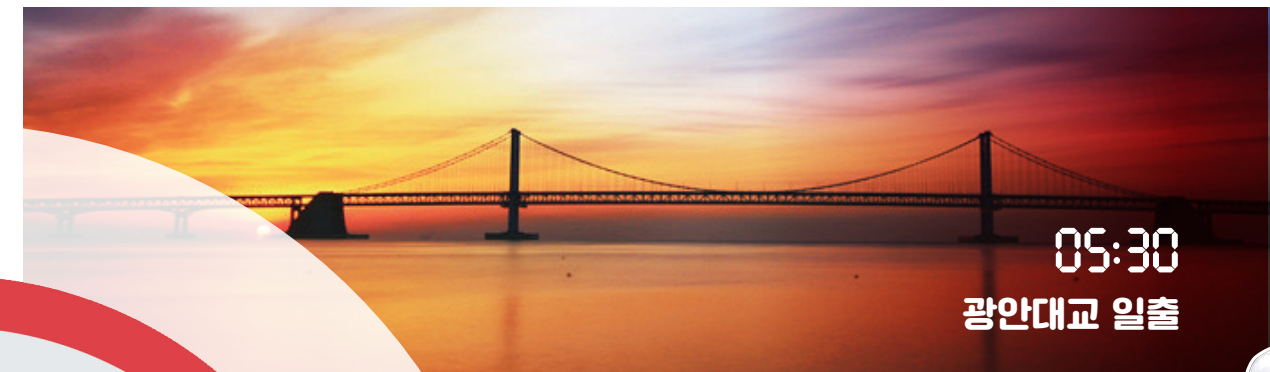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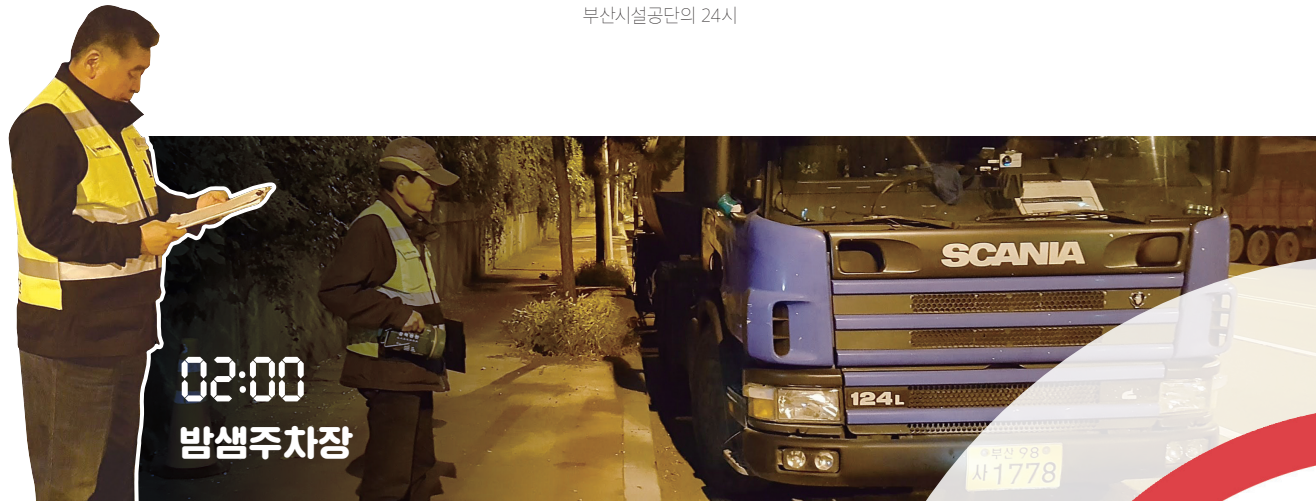
SERVICE

- 38 CS교육
부산시설공단 CS친절강사가 전하는 친절 예절 백서
- 40 고객의 소리

NEWS

42 공단 소식





부산시설공단의 하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임 이사장 인터뷰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는
열린공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제11대 이사장
추연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설공단 제11대 이사장 추연길입니다.
부산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
부산시설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
오셨나요?

저는 28여 년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서 공직을 거쳐, 부산항시설관리
센터, 부산항만공사, 미래고속(주) 대표이사와 동아대학교 등 대학교수
를 역임했습니다. 민간과 공공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살려 보다 더 행
복한 부산 시민,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첫째.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모든 시설은 부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안전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설공단
의 직제에 안전혁신본부를 신설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입
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어느 시도보다 교량과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오
랜 시간 교량과 터널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이에 대한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축
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문화하고 매뉴얼을 잘 정비하며,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보강
하는 한편,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나가
겠습니다.

특히, 같은 도로에서도 터널관리, 교량관리 등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자칫 관리
가 소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찾아내어 부산시와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
들이 노후 생활을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공기관으로서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원의 유희지를 파악해서 체육시설, 여가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히 쉬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체육, 문화 프로그램
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지혜와 역량을 나누는 재능기부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놀이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호 등도 같이 한다면 도시가 좀 더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
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에서 '어르신 공원이용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어르신께
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셋째. 상가와 공원시설 등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공원, 장사, 상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계된 상인 및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최대한 ‘주민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직접 만들고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입주한 상인, 주요 시민단체들이 함께 시설별 서비스 향상방안을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의 이용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공단 시설에 입주한 매장들의 매출도 늘어나 공단의 수익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영락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시설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직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산시설공단이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산시설공단 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 개선 의견과 사업 운영, 서비스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단의 홈페이지나 SNS, 사무실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은 24시간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해나가면서 시민 중심의 혁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열린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임직원이 함께 만든

“NEW 부산시설공단 비전체계도”

미션

공공시설의 가치 창출로 도시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핵심가치

시민행복
추구
♡

도시안전
구현
🏠

경영혁신
창출
🏢

사회가치
실현
🌐

비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전략목표

안전중심의
조직과 역량 강화

선도적 혁신과
경영합리화

지속가능한
사업과 기술 개발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경영방침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는 열린공기업



경영혁신토론회 그 열기의 현장

부산시설공단은 11월 23일 부산시 민공원에서 추연길 이사장을 비롯해 새로운 경영진, 그리고 3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여해 경영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단·원별 혁신계획보고와 토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토론, 쉬는 시간은 산책 토론까지 혁신 아이디어 토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토론의 최대 주제는 시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방안, 도시안전, 신규 세입원 창출, 신규 일자리 창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광안대교 관광자원화와 드론, VR, AR 등 장비를 활용한 신규사업 창출, 시민공원 안전교육장 신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지하도상가의 경우 일본몰, 러시아몰 등 이색적인 해외몰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영락공원의 경우 유족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 도입, 자연친화적 자연장·수목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으며 주차사업단의 경우, 민간위탁주차장과 직영주차장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판 색상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공원 야외에 이벤트존 확충을 통한 활성화, 동절기 하야리아잔 디광장에 눈 내리는 시설연출, 송상현광장 양방향 도로를 활용한 공원화 의견 등도 있었습니다. 공원사업단의 경우 구청 등과 연계한 숲해설사 공유, 공원이 가진 가치를 잘 활용하여 공원 쪽에 집중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연길 이사장은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일자리창출과 시민행복과 도시안전에 위한 혁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 목표관리제(MBO)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마트 공단이 그리는 2020 부산 시민의 하루

- 1 부산 시민 ‘부시민’ 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스마트 빅보드** 확인
※스마트 빅보드 : 빅데이터 기반 도로교통현황, 주차현황 등 공단 정보 실시간 제공시스템
- 2 막히지 않는 도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퇴근(색갈유도선, 지능형 추돌방지 시스템)
-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뒤 **내 차 안전서비스**로 걸어가는 동안 요금 결제(키오스크, 내 차 위치 확인하고 요금 바로 정산)
- 4 친구와 미세먼지 없는 **지하도상가**에서 즐거운 쇼핑
- 5 남자친구와 공원에서 **증강현실 스텝프투어**
- 6 부산시설공단 시민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참여
- 7 **더널 IT 원격관리시스템** 견학
- 8 부시민 씨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 영락공원 산책
장미숲길 조성된 영락공원에서 노인일자리 노인의 **웰다잉 프로그램** (장례시설에 대한 인식전환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 안내



일자리창출과 시민행복, 도시안전에 위한
부산시설공단의 혁신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부시민 씨
(20대, 부산시민, 여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부산시설공단 잡학사전

◆ VR(가상체험) 기술 편 ◆

VR, AR 요즘 자주 등장하는 영어 용어들.

뭔가 미래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벌써 부산시설공단이 상용화하는 기술,
스마트 공단의 스마트 직원이 전하는 스마트 기술, 지금부터 시작!

글_성해진(안전관리팀)

VR과 AR, 뭐가 다른가?

-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
- A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 혹은 확장현실

VR은 가상의 현실을 다룹니다. 특정 가상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오감을 속여 그 가상을 실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반면, AR은 실제 현실세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실제 현실 위에 가상의 정보나 물체를 덧입혀서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VR은 기기를 통해 완전한 가상의 세계를 보지만, AR은 가상이 덧입혀진 현실을 보는 것이죠.



부산시설공단에 안전보건 VR(가상체험 : Virtual Reality)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어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8월 VR콘텐츠 공모에 우리 공단이 선정되어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가상체험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현장 맞춤형 미디어 개발



온·오프라인 콘텐츠의 보급

출판 콘텐츠의 직접 제공 및 온라인 콘텐츠(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SNS 등) 간접 보급

VR(가상체험 : Virtual Reality)콘텐츠, 그게 뭐가요?

VR콘텐츠란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가상현실 공간을 제작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사고 상황 등을 체험자가 간접 체험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VR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나요?

콘텐츠는 360°카메라 또는 어안렌즈가 부착된 DSLR 카메라를 사용해 현장을 직접 촬영하며, 촬영한 360°사진 및 동영상에 해당 설비 및 작업과 관련된 리소스(안전보건 관련 수칙, 법, 동영상 등)를 삽입하여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콘텐츠는 VR기기를 통해 실감나게 볼 수 있으며, 인터넷PC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VR안전교육

현재 부산시설공단은 터널, 광안대교, 영락공원, 한마음스포츠센터를 대상으로 VR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완료 후 VR 안전체험관을 개설하여 공단 직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전하는 부산시설공단 시설 이야기

시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안녕하세요, 부산시설공단 뉴스브리핑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경남 지역방송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KNN뉴스아이(평일 20:00)와 공개클리닉 웹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Q 부산시설공단과 특별한 인연이라면?

지난 9개월 동안 부산시설공단의 뉴스브리핑에서 주요 행사와 이슈를 전달해드리면서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Q 뉴스브리핑을 진행하신 소감은요?

먼저 부산경남 지역방송 아나운서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공기업의 다양한 소식과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생생한 시민들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고, 감사했습니다.

Q 부산시설공단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면?

사실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이 워낙 많다보니, 정확히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지 자세히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부산시설공단 뉴스브리핑을 전해드리면서 부산시설공단이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어떤 성과를 내는지 등 부산시설공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부산 시민의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 가운데에 부산시설공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Q 부산시설공단 시설을 이용해본 적 있으신지, 또 소감은요?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등에서 행사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광안대교나 도시고속도로는 출퇴근 또는 야외 촬영 때 이용하기도 하고 도시고속도로는 뉴스 진행할 때 몇 번 전해드렸네요.

시민공원이나 송상현광장은 도심 속에 그렇게 푸른 잔디가 깔끔하고 넓게 펼쳐진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있기에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광안대교는 부산의 너른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멋진 예술품 같은 다리죠. 불꽃축제나 여러 행사들로 부산 시민들의 일상에 단비 같은 추억을 선사해주니 저희야 고맙지만, 그만큼 직원 분들은 고생하실 것 같아요.

Q 부산시설공단 시설을 이용하신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얼마 전에 행사 참여를 위해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을 찾아가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민공원이 워낙 넓잖아요. 행사장 위치가 헛갈려 행사를 앞두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문득 뉴스브리핑 때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서 공원길 찾기가 된다고 진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해 360도 화면으로 행사장 위치를 확인하여 행사에 잘 참여했던 기억이 나네요.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 항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쁩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반짝반짝 아름다운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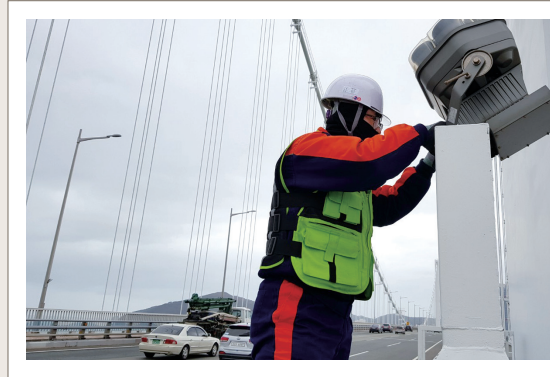
Photo Essay

글_황영구 과장(교량기전팀)



화려하게만 보이는 불꽃축제 뒤에,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1. 행사조명점검
2. 행사 전 교량점검
3. 불꽃축제 후 도로노면 청소



국제신문

112m 상공서 불꽃축제 준비 구슬땀

부산시설공단 조양정팀 팀장
27일 축제 앞을 교량기전팀
출근 30분 여남은 의지한채
세일 아말한 주일
교량난-관구수

혹여나 경관조명이 소등되지 않을까,
조명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꽃 낙하물이 도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행사 전부터 끝나서까지 매순간 노심초사 하면서
교량 시설을 살펴보는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있기에
부산의 불꽃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

| 이벤트&페스티벌 |

2018. 12. 31. ~ 2019. 1. 1.
부산해맞이축제 시민의 종 타종식

2019. 5. ~ 10.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은 들렀다 가는 도심 속 아기자기한 힐링공간입니다. 산 정상에는 부산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부산타워가 우뚝 솟아 있고, 공원 이곳저곳에는 예쁜 꽃시계와 이순신장군 동상, 부산시민의 종도 보입니다. 이밖에도 미술의 거리와 벽천폭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다채롭고 독특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펼쳐지는 토요상설무대는 외국 관광객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 총면적** 70,812㎡
- 주요시설** 부산타워, 시민의 종, 꽃시계, 용탑, 이순신장군 동상 등

YONGDUSAN PARK

부산타워

준공 1973.10.09.

전망대

경주 불국사 다보탑 지붕에 얹혀 있는 보개 모양을 본뜬 것

3.85m



시민의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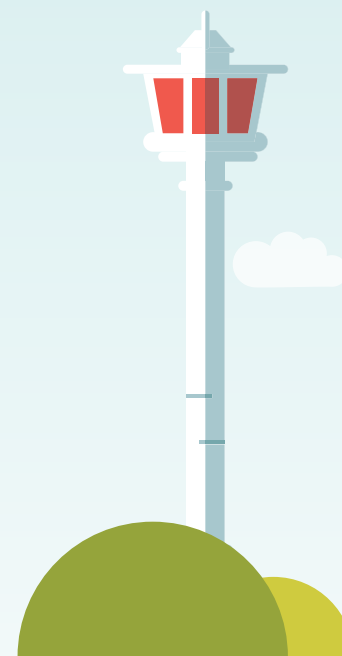
구경 2.3m, 종신고 3.15m, 무게 25톤

건립년도 1996.12.31.

기부금

1,280백만원
(부산시민 100,723명 참여)

120m (해발 69m)



용두산공원
미디어파사드
카드뉴스





부산시설공단,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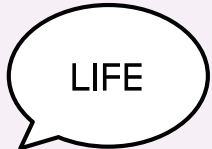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모범기관 부문 대상 수상



글_김민준 주임(총무인사팀)



부산시설공단이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8 올해의 일자리대상'에서 공공일자리 워라밸 모범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시 곳곳의 공공시설을 24시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고 청년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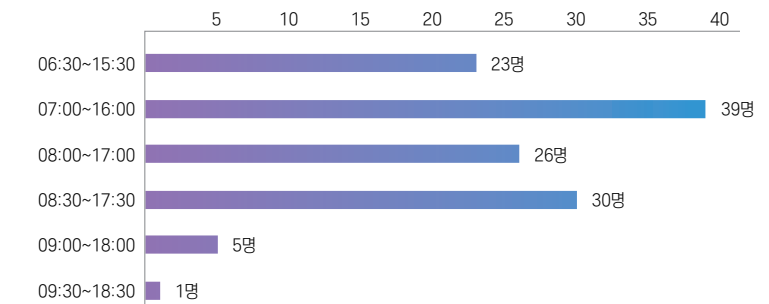
부산시설공단은 그동안 시차출퇴근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하여 유연한 근무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전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연 2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임원 및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원의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가족친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고 2017년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명실공히 가족친화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펙 등 차별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으로 청년일 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 노인일 자리를 지원하는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또한 24시간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들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재편성해, 초과·야간근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시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분할사용 가능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현재 23명의 남녀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승진, 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는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워라밸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재 대상자 기준 이상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시차출퇴근 이용현황
이용사유 : 영락공원 등
화장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 자녀 양육 등
(단위 : 명)



아울러, 장기근속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밖에도 △청년일자리 지속창출, △여성관리자 확대 추진, △지역대학 연계 일자리 체험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우수공기업으로서 더욱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워라밸 시책**, 무엇이 있을까?

- 시차출퇴근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 정착

시차출퇴근 - 연 1,201명 / 육아휴직 - 23명(남 6, 여 17)

- 장기재직휴가 및 연차 활성화 등 심 있는 조직 문화 조성

장기재직휴가 55명(2018년 기준)

- 연 1회 직원 및 가족 종합건강검진 지원

연 20만 원

- 여성관리직 목표 수립 및 달성

9.8% 달성 ▶ 2018년 목표(6.8%) 초과 달성

-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2018년 33명

-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획득

2012년 12월 3일 ~ 2020년 11월 30일

- 60세 이상 실버일자리 창출

2018년 228명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블라인드채용 청년일자리 창출

시차출퇴근제(또는 유연근무제)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동안에 임금 저하 없이 1일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동안에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예 : 주 40시간 중 30시간만 근무 시 임금의 75% 지급)



5줄로 알아보는 ‘워라밸 시대’ 풍속도

‘주 52시간 근무’ 외식 시간대 1시간 빨라져

연령대 낮을수록 칼퇴근...‘워라밸’ 중시

워라밸족 위한 교육프로그램·모바일 앱 등 인기

- 🔔 직장인 칼퇴근 48.1%, 연령이 낮을수록 칼퇴근 비중이 높으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 2차, 3차 술자리가 줄어들고 일찍 귀가해 여가를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외식 시간대 변화에 영향
- 🕒 공연업계, 워라밸족 위해 내년부터 공연 시작 시간을 오후 8시에서 30분 가량 앞당기는 안 검토 중
- 💡 교육업계,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한층 강화
- 📱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SNS·운동·취미 등과 관련된 모바일 앱 인기



직원건강산책



청렴워크숍(선비체험)



제주도 산업시찰 후기

부산 시설에서 놀다

글_사공동 주임(추모공원사업소)

2018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3박 4일간 부산 시설공단 직원 및 가족 4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시찰을 다녀왔다. 허브동산, 우도, 섭지코지 등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가족, 동료들과 추억을 나눈 이들.

추모공원사업소 사공동 주임이 여정을 멋진 시로 표현해 보았다.

먼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제주 품에 안겨
우도 마늘 빵 먹고 맴맴
아이스크림 먹고 맴맴 하며 돌다가 눈앞에
발견한 파도의 조각품들

검은 모래와 황금 모래 신기한
하얀 모래를 밟아보고 만져본다

섭지코지에
물질하는 여자를 닮은 노란
들국화 곤경에 처할 때마다
물 밖으로 나와 휘 바람 불면서
표정을 잃지 않는 삶의 얼굴입니다

송악산 언덕에 백발의
억새가 슬피 울면
모슬포 바닷물도 거품을 문다
아픈 역사에 할 말을 잃어버린
말들은 조용히
풀만 뜯고 있었구나



멋진 바다를 보며 우도에서



섭지코지

보물 같은 낭만의 아일랜드
시설가족님들을 감동시킨
만덕할머니의 정신 "은광연세"
은혜로운 빛이 세세토록 빛나라

추사의 글씨는 그 시대 만덕을
기억하게 하며 할머니의 의지와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살기 각박한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 줍니다

향기 없는 동백꽃 말처럼 오직
배고픈 제주인을 사랑하며 바다에
한계는 보이지 않아도 운명을
넘어선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향기를 풍기는 김 만덕할머니요

가는 곳마다 반겨주는 따뜻한
태양을 닮은 밀감 같은 사람들
척박한 땅 흐드러지게 핀
억새 풀 같이 곳곳하게 살아오시며
길목마다 오는 손님 환영을 하고
가는 손님 잘 가라 손을 흔들며
다음에 또 오시라 손짓 하네요



천지연 폭포



선인교



우도에서



송악산 전망대



더마파크에서 승마 체험을

공단 역사의 산 증인

응답하라, 1992

뚜루뚜루 응답한다, 오버.



부산시시설공단의 나이는 올해로 만 26세. 부산시시설공단 30주년을 앞두고 고객홍보팀에서는 직원(퇴직직원 포함)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시설공단 30주년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시설공단과 관련된 사진, 기록물, 역사물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는 부산시시설공단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입사 이후 방대한 역사물들을 기부해주시고 계신 직원분을 소개합니다.

글_부산시시설공단 운영본부장 최해관

"자, 여기 있습니다~"

고객홍보팀에 몇 개의 상자를 들고 나타난 한 사람, 바로 최해관 부산시시설공단 운영본부장입니다. 직원들이 우루루 물려와 "와~~" 하는 함성을 자아내는데요. 상자 속에는 그가 1992년 주차관리공단 시절 입사한 이후 한 순간 한 순간 거쳐 온 그동안의 기록들이 그때 그 시절 모습 그대로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부산시시설공단 1호 장관 표창입니다. 이걸 내가 입사하고 받은 최초 표창입니다. 이 명패들은 내가 맡았던 보직 자리들인데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하나 저에게는 참 소중한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때마다 회사 역사 자료들을 모은다 하여 회사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를 열어보니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소형 수첩들이 한 해도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업무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수첩도 있습니다. 한편에는 1990년대 전 직원 체육대회 때 경기 시작을 알렸던 스타트 건, 광안대교, 태종대유원지, 추모공원 등 거쳐 간 부서들의 기념품도 있습니다.



4

다른 사람들이라면 쉽게 지나치거나 버릴 수 있는 자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집해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물건들을 수집해오셨나요?

"내 열정과 청춘이 담긴 회사에서,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애써 만들어낸 성과물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허투루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업무수첩만 해도 나 쓰라고 받았지만 어찌 보면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어찌 보면 그들의 작품이니까 쓰기 아까울 정도로 소중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보내는 순간순간이 살아온 발자취이고 함께해온 동료들과의 추억이라는 마음으로 지난 기록들을 소중하게 간직해 왔다는 그. 이 기록물들이 회사를 위해 더 오래 더 소중하게 간직되었으면 좋겠다며 기증의 바람을 밝혔다.

- 1 태종대유원지 및 추모공원사업소 메모함
- 2 2003년 광안대교 개통 기념 모형 기념품
- 3 1990년대 공단 체육대회 스타트건
- 4 1995년 공단 1호 장관표창
- 5 공단 직무수첩(2008년~2018년)

30주년 사진전 자료 공모

1992년 주차관리공단으로 설립된 이후 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여러 도심 공원과 장사시설, 상가, 체육시설 등 부산의 공공시설을 총 망라하며 사업영역 확장과 성장을 거듭해온 부산시시설공단. 그 뒤에는 최해관 운영본부장과 같이 매 순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신뢰와 관심으로 공단의 무한한 지원자가 되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부산시시설공단의 발자취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받는 시민의 공기기업으로 성장하는 부산시시설공단의 앞날을 위해 그동안의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한 「30주년 사진전」에 직원(퇴직직원 포함)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집내용 부산시시설공단 관련 역사물(사진, 기록물 등)
- 수집기간 연중 계속
- 제출처 부산시시설공단 고객홍보팀(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 2층)

5



부산시설공단 사랑나눔봉사회



김태인

사랑의 연탄나눔

글. 김갑식(부산시설공단 대리)

인생을 가는데 급하게 고속도로만 가지 말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국도로 천천히 가자고 늘 마음은 먹지만, 일상은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2018년 연말을 되돌아보며, 「부산시설공단 사랑나눔봉사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딸(김태인)과 참여해 올바른 사랑나눔 봉사실천을 하게 되었다. 사랑나눔의 선행을 실천하고 사회참여와 시민의식을 함양, 올바른 성장으로 개인 인성을 갖춰주고 싶었다.

올 겨울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전달한 연탄으로 어르신들이 따스하고 건조한 겨울을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우리 마음은 사랑과 행복이라는 선물로 가득 채워진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포장된 따뜻한 말보다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더욱 필요한 때다. 내 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사랑나눔 실천에 동참함으로 스스로 바른 인성을 키우고,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앞으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나가기 위해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까지 이웃사랑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부산시설공단 사랑나눔봉사회의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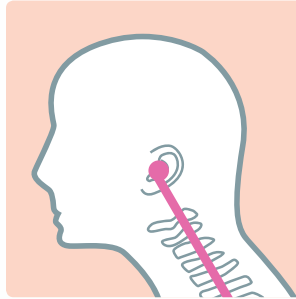


부산시설공단 종합검진 협약병원 전문가가 함께 하는 건강칼럼

함께 예방해요,

거북목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

글. 정성수(온종합병원 척추센터장)



일자형태의 목(거북목)

혹시 아래와 같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 머리와 목이 이어지는 부분이 뭉치며 쓰러지면서 아프다.
-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일 때 뻣뻣하다.
- 어깨까지 결리고 미미한 두통도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은 주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목의 형태가 일자나 거북목이 되면 경추의 윗부분이 극심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목에 무리가 가면 목 뒷부분 근육과 인대가 긴장되어 만성통증을 유발하고 근막동통증후군이나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자가진단 항목

- ☐ 목과 어깨가 쉽게 뭉치며, 통증이 있고 돌릴 때 소리가 난다.
- ☐ 목과 등을 잇는 경계의 목뼈(7번 경추)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다.
- ☐ 목덜미에 살이 많고 주름이 많은 편이다.
- ☐ 앞으로 보고 똑바로 서면 귀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라인이 일자가 아니다.
- ☐ 쇄골과 어깨 사이에 손바닥을 댔을 때, 어깨가 유난히 앞으로 말려있다.
- ☐ 육안으로 봤을 때, 좌우 쇄골 높이와 모양이 다르다.
- ☐ 안색이 칙칙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 ☐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불량이 잦다.
- ☐ 가슴이 처진 편이다.
- ☐ 등이 굽어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다.

7가지 이상
해당되면
거북목 증상
'의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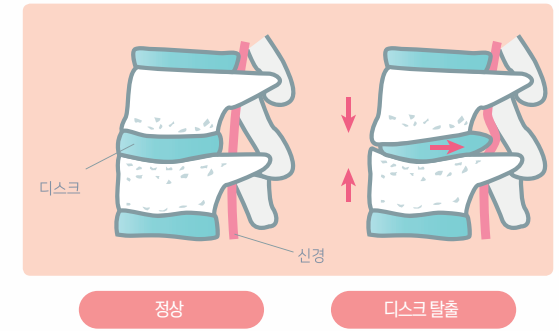
5가지 이상 해당되면
'예방운동이 필요한 단계'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 날씨가 흐리면 허리 아픈 분들
-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찌릿찌릿한 분들
- 양치할 때 허리 숙이기도 힘든 분들

허리 통증 하면 외과적으로는 디스크와 척추협착증, 내과적으로는 자가 면역 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강직성척추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자가진단 항목

문진항목(3가지 이상 해당 시 디스크 의심)

- ☐ 허리가 쭈시고 통증이 있다.
- ☐ 허리, 엉덩이, 다리에 이르는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다.
- ☐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
- ☐ 눕거나 몸이 이완되는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기도 한다.
- ☐ 하반신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있다.

활동항목

- ☐ 반듯한 자세로 누웠을 때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 - 골반 위치 변형 또는 디스크 의심
- ☐ 반듯한 자세로 누워 엄지발가락을 아래쪽으로 돌려본다. - 통증이 느껴진다면 디스크 의심
- ☐ 바른 자세로 서서 엄지 발가락 끝, 발 뒤꿈치로 걸어본다. - 통증이 느껴진다면 디스크 의심

해당되는
개수가 많을
경우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허리와 목, 어깨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더라도 1시간에 1회 이상은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앉을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엉덩이와 등을 밀착하고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되 허리와 다리의 각도가 90도를 유지하도록 바르게 앉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사이즈에 맞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허리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영이나 헬스 등으로 꾸준히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 이힐을 오래 신으면 체중이 앞으로 쏠려 근육과 뼈에 무

리를 줄 수 있으므로 꼭 신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하고 굽이 4cm 넘지 않게, 2~4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척추가 바로서야 나의 하루가 바로 선다’라는 말도 있듯이, 앞으로 항상 바른 자세를 생각하시면서, 업무 시간에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의 척추와 목 건강을 지켜보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셨다면, 바로 기지개부터 한번 쭉욱~ 켜보세요!

※ 부산시설공단은 온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한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51-607-0131

부산시민공원 경관조명축제

2018년 12월 10일 ~ 2019년 01월 31일

반짝 반짝, 부산시설공단 겨울 빛 축제 소개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부산시민공원 산책로

뽕로 도서관 야외무대

문화예술촌

방문자센터 야외

기억의 기둥

반짝이는 부산시설공단의 겨울 부산 곳곳 따뜻한 축제와 행사



‘별이 빛나는 부산시민공원’으로 놀러와~ 부산시민공원 경관조명축제 <별이 빛나는 공원>

부산시민공원에 라이트아트·키네틱아트 LED 큐브 의자 작품 20점 전시
기억의 기둥, 문화예술촌, 뽀로로아와무대,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 2019년 01월 31일(목)

| 장소 | 방문자센터 야외데크 등 시민공원 일원

부산시민공원 천체관측 <별별잔치>

과학도 놀이로! 겨울 밤하늘 천체망원경으로 별관측 무료
체험행사, 밤하늘의 신비로운 별보기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 프로그램 놀이’

|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 2018년 12월 23일(일),
18:00 ~ 21:00

| 장소 | 부산시민공원 문화의 숲길

| 가격 | 무료 ※ 현장 선착순 접수

| 후원 | 부산과학기술협의회(문의 : 051-850-6017)



부산시민공원 연말나눔행사 “선물같은 문화나눔 공방체험”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5개 공방 대표작가 재능기부
전개, 금속·도예·섬유·목공예, 판화 작가와의 소통으
로 아이들이 작품 제작 체험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15:00~16:30

| 장소 | 부산시민공원 문화의 숲길

| 대상 | 지역소외아동 100여 명

| 가격 | 무료 ※ 본 체험행사는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하도상가, 태종대유원지 크리스마스 장식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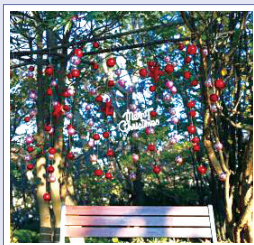
트리 점등 및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

| 일시 | 2018년 연말 ~ 2019년 연초

| 장소 | 남포, 광복, 부산역, 국제, 서면 지하도상가 일원
(서면몰, 중앙몰, 부전몰)
태종대유원지 경사로 일원



지하도상가



태종대유원지

반짝이는 부산시설공단의 겨울 행복한 기해년, 새해맞이 행사소개

광안대교 연말연시 시민참여 이벤트

성탄절 및 새해맞이 미디어 연출, 이벤트

|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1월 1일(화)

| 장소 | 광안대교

구분	내용	일시	
미디어 연출	크리스마스 트리	2018년 12월 21일 ~ 2018년 12월 25일	19시/20시/21시/22시(각 10분)
	새해 카운트다운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1일	23:30~00:30
시민 메시지	새해 연하장	2018년 12월 28일 ~ 2019년 1월 1일	20:10/21:10(각 10분)

※ 시민 메시지 이벤트 신청 : 2018.12.14.(금)~12.21.(금)

- 광안대교 SNS로 신청(원하는 메시지를 이벤트 공지란에 입력하세요.)

- 사연내용과 선착순 심사하여 100명의 메시지를 1분씩 표출해드립니다

광안대교 해맞이행사 추진계획

| 일시 | 2019년 1월 1일(화) 06:00 ~ 09:00
(교통통제 05:00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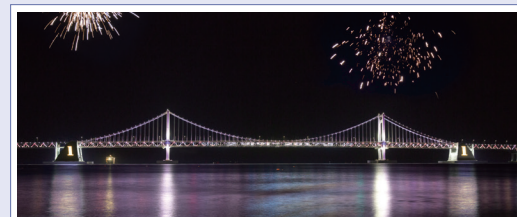
| 장소 | 광안대교 상층부 전 구간
※ 하층부 차량 통행

새해맞이 미니 음악회

일시 2018년 1월 1일(화) 07:30 ~ 08:10

※ 일출시간에 맞춰 진행

장소 광안대교 상층부 일부 구역



용두산공원 시민의 종 제야타종식

| 일시 | 2018년 12월 31일(월), 00:00

| 장소 | 용두산공원 종각

| 참석 | 부산시장 외 2,000여명



부산어린이대공원 새해맞이 소망떡국 나눔행사

새해맞이 소망떡국 무료 제공 및 전통차 나눔

| 일시 | 2019년 1월 1일(화), 07:00~11:00

| 장소 | 부산어린이대공원 사무실 앞 만남의 광장

| 대상 | 공원 이용객 2,500여 명

| 주관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부산시협회 초록봉사단





부산시설공단 CS친절강사가 전하는

친절 예절 백서

글_ 부산시설공단 CS친절 강사



1. 호감 가는 용모, 복장 예절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0.1초! 하지만 정해진 첫인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40시간. 용모, 복장에 따라 신뢰감 있는 직장인으로 보일 수도 또는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복장을 체크해 봅시다.
부산시설공단인으로서 용모와 복장 점검사항!



- 비듬이 있거나 기름져 있지 않은가
- 앞머리가 눈을 가리거나 구레나룻이 길지 않은가
- 헤어가 눌리거나 잔머리가 나와 부스스하지 않은가
- 머리색이 너무 밝지 않은가



- 면도가 안 되어 있거나 콧털이 나와 있지 않은가
-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지 않은가
- 치아에 이물질이 끼거나 입 냄새가 나지 않은가



- 옷이 구겨져 있거나 소매, 목깃 부분이 더럽지 않은가
- 옷에 냄새가 나지 않은가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노출이 있지 않은가
- 신발의 색상 모양은 적당한가
- 신발이 깨끗하고 구겨 신지 않은가
- 명찰을 착용하였는가
- 어깨에 비듬이 있거나 머리카락, 실발 등이 붙어 있지 않은가

용모, 복장, 그 다음으로 부산시설공단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직원 여러분의 대화 예절입니다. 여러분과 고객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대화예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2. 고객응대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화법

① 명령어보다는 청유형으로 대화해보세요.

커타라쎄요



기다려주시겠어요?

오쎄요



오시겠어요?

② 쿠션 화법을 써보세요.

쿠션 화법이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완충시켜주는 화법으로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대화 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③ 아름다운 표정 예절을 지켜보세요.

메라비언의 법칙



시각적 요소 55%



청각적 요소 38%



말의 내용 7%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말보다도 표정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다면 페이스 요가로
얼굴도 예뻐지고 미소도 아름다워져 보자.

CRM 고객의 소리 칭찬글
직원을 **칭찬**합니다

대신공원 직원 여러분께
“아버지의 산책길,
밝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신공원 직원 여러분께

2018. 1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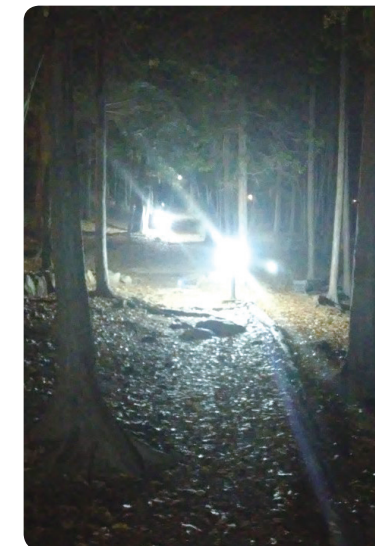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침, 저녁 틈틈이 대신공원을 찾아 편백나무 숲의 향기를 즐기곤 합니다. 공원 구석구석에 가로등이 있지만 민속관 옆 좁은 산책길에는 가로등이 없어 손전등을 항상 지참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작은 등을 여러 개 설치하여 이제는 손전등 없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니신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공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대신공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추운 겨울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 답변

저희 대신공원 직원들은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구덕 민속예술관 옆 산책로에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언제나 시민 편의 중심의 공원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에게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신공원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 (051) 860-7832

BISCO NEWS

부산시설공단,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2년 연속 수상 쾌거

부산 대신공원 편백숲, 2018 아름다운 숲 '누리상' 수상

수령 70년 이상의 편백나무, 삼나무 등 30만여 그루의 수림 조성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 편백숲 '공존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부산시설공단이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대신공원 편백숲'으로 아름다운 숲 '누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부산 성지곡 산림욕장 편백숲으로 아름다운 숲 공존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대신공원 편백숲이 누리상을 받아 겹경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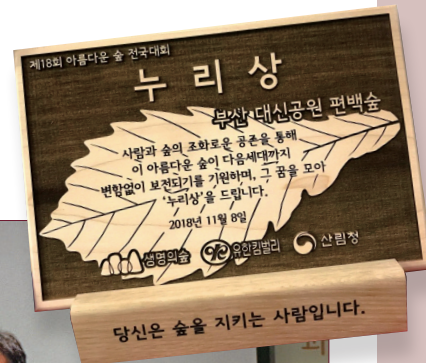
산림청과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유한킴벌리가 공동주최하는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전국의 개인, 단

체,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50개소가 신청접수를 하였고, 열띤 경쟁을 통해 부산 대신공원을 비롯 최종 수상지 6개소가 선정되었다.

부산대신공원은 >생태·역사·문화·경관적 숲의 가치 >지역기여도 및 활용 콘텐츠 등 산림서비스 >관리주체의 노력과 체계 등 생명과 생태계 보호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온 숲 관리능력이 높이 인정받았다.

부산 대신공원은 특히 수령 70년 이상의 편백나무, 삼나무 등 30만여 그루의 수림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의 피톤치드를 내뿜는 치유의 공간으로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BISCO



BISCO NEWS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착한운구서비스 시범운영

운구 인력 없는 유가족 대상 2019년 2월까지 시범서비스 제공

전용운구대차를 활용하여 운구인력 부족문제 해소 기대



부산시설공단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구 인력이 없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착한운구서비스 시범운영에 나선다.

착한운구서비스는 최근 들어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발생이 늘어나고, 가족구성원 축소와 장례의식 간소화에 따른 운구 인력 부족 사례 증가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인의 장례절차에 있어 존엄성의 회복이 필요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착한운구서비스의 운영절차는 먼저 ▲(접수) 화장접수처 신청서 접수 ▲(배차) 2인1조의 착한운구대차 화장동 주차장 장의차량으로 이동 ▲(맞이) 장의차량에서 관 인수인계 ▲(운구) 화장동 주차장에서 화장로 입구까지 운구 ▲(고별) 화장로 입로 전 마지막 의례 진행 후 로전실 이동 ▲(입로) 운구용 대차로 관 인수인계 후 화장로 입로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시범운영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한 후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정상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ISCO

